

[건강·의료]

Medical lounge

15일 전대병원 '광의학'·30일 조대병원 '당뇨병' 국제 의학 심포지엄 잇따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9월 중 국제 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15일 '광의학'을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전남대병원 6동 7층 강당에서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개원 96주년과 전남대의대 피부과학교실 개설 6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행사. 미국·일본·국내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光) 의학' 관련 기초·임상분야의 최신 연구 논문 8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간사이 의과대학 타카시 호리오 교수가 '광 발암에서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면역억제 관련성'을, 미국 위스콘신대학 하산 무쿠타 교수가 '광 발암과 광 노화의 예방적 차원에서 식물성 항산화제'를, 전남대병원 피부과 이승철 교수가 '피부에서의 과옥시화독신(ox·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단백질)'등을 발표한다. (문의 062-220-6698)

조선대병원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30일 병원 의식관에서 미국·일본·핀란드와 서울대 등 국내의 유명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 임상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당뇨병'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당뇨병의 최신연구 및 치료에 대한 혁신적 접근에 대한 소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양세원 교수, 미국 국립보건원(NIH) 실험의학연구소장 아브너 너킨스 박사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문의 062-220-3552)

健保·남구 노인건강증진 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광주시 남구청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약을 체결. '효능증진 수중운동'과 '밴드 운동교실'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18일부터 12주간 60세 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남구 주민건강증진센터와 영주실내수영장 등에서 '탄성 밴드교실'과 '효능증진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300여평 규모로 세워진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 체력증진실·보건교육실·금연상담실·해오름터(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늘푸름터(청소년 정신질환 상담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의 062-650-8238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잘못된 식습관 건강 해친다

짜게... 달게... 빨리... 먹지 말라

<고혈압> <당뇨병> <비만>

4천500만 '헬빙'시대. 이제 무서운 것은 호환(虎患)이나 마마(天運)가 아니라 '비만'이 됐을 정도로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식습관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지방간, 뇌졸중 등 성인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나쁜 식습관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아 잘못된 식습관 교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식습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된 요즘,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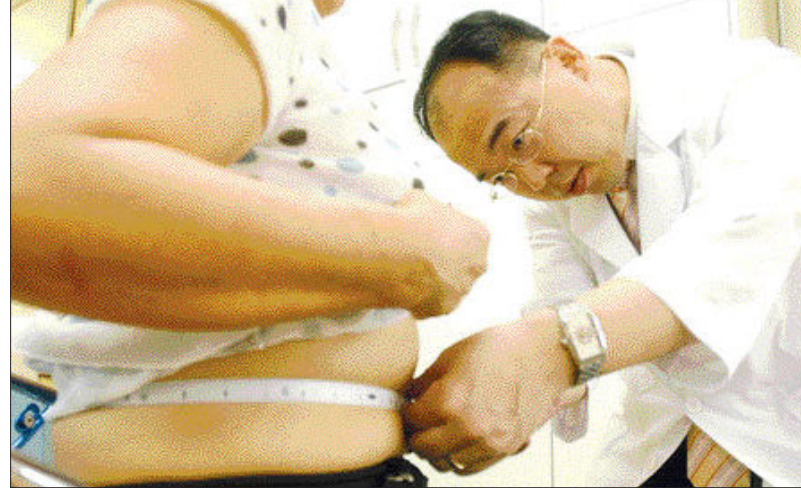
◇짜게 먹으면 '물다공증 직진'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트륨 주의경보'를 내릴 정도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높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4,900mg(소금 12.5g)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인 2,000mg(소금 5g)의 2.45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짜게 먹으면 왜 고혈압이 생길까. 혈액의 양은 심혈관계에 존재하는 염분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수분 섭취가 증가해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고 따라서 압력도 상승한다. 따라서 국 찌개 국수 라면 등의 경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낫다. 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달게 먹으면 'ET형 체형'

우리가 음식에서 느끼는 단맛은 사실 탄수화물의 맛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순간 혈중 당 농도가 오르다 가 채장 속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로 저



현대기정외과와 조항훈 원장이 고혈압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입맛도 대물림... 자녀 식습관 교정 중요
끼니 걸렀다 소나기밥 먹으면 비만 우려

혈당이 올 수 있다. 인체는 저혈당증을 막기 위해 팔·다리 근육을 분해하는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한다. 즉 단 음식을 먹으면 팔·다리는 가늘고 아랫배, 가슴은 발달하는 ET형 체형이 될 수 있다. 당분의 지나친 섭취는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분을 섭취하게 하는 경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낫다. 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빨리 먹으면 '비만 경보'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15분 이내에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한 식사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장 안에 있던 강력한 위산과 펩신(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 식도로 역류해 생기는 질환. 속이 쓰리고 가슴이 화끈거리며 목에 뭔가 걸린 듯하고 답답하며 때때로 기침이 나오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빨리 먹는 식습관은 비만에도 영향을 끼친다. 식사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과식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유형하는 식사법, 건강엔 '글썽' 비만을 경계하는 사람일 수록 채식에 집착할 확률이 높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야채 샐러드 등으로 끼니를

■식생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해당하는 것에 v 표 하세요.)
1. 아침 식사를 굶는다. ()
2. 아침을 시리얼·샌드위치로 해결한다. ()
3. 빵과 분식을 좋아한다. ()
4. 커피와 청량 음료를 자주 마신다. ()
5. 폭간식을 먹어야 한다. ()
6. 식사를 굶고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
7. 물을 별로 마시지 않는다. ()
8. 반찬에 겨우, 튀김 등이 있으면 좋다. ()
9.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먹는다. ()
10. 밥을 빨리 먹는다. ()

* v 표를 개수가 다음과 같다면,
없음 (양호)
1~3개 (식생활 점검)
4~6개 (식생활 개선 요망)
6~10개 (전문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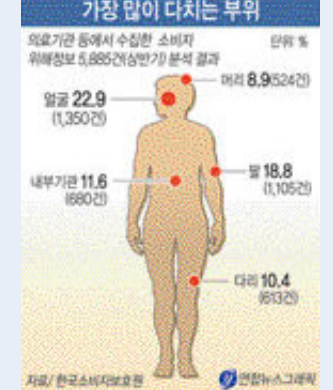
■식습관 개선을 위한 지침

- 1. 끼니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2. 현미 잡곡밥과 채식 위주 식단을 마련한다.
3. 말기류 음식과 분식을 되도록 삼간다.
4. 육식을 줄이고 겨우, 튀김의 섭취도 줄인다.
5. 가공 식품과 청량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간식을 삼간다.
6.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며 식사시간을 늘린다.
7. 국과 찌개 먹는 양과 횟수를 줄인다.
8. 물에 많이 먹지 않는다.
9. 기름기 많은 음식과 튀김음식 섭취를 줄인다.
10. 생으로 먹거나 삶고 짠 음식을 즐긴다.
(출처:www.cjem.com 김수현의 생명방망이)

채우고 한 두시간 후 허기져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유행하는 '브런치(Breakfast + Lunch)의 줄임말'식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의 경우 아침밥을 거르고, 점심으로 아침밥을 대충하고는 경우가 많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침을 먹었을 때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더 적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도움말=현대기정외과와 조항훈원장)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
얼굴 > 팔

한국인은 신체 부위 중 얼굴을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소비자 위해정보 5천885건을 분석한 결과 눈·귀·코 등 얼굴 부위를 다친 경우가 22.9%(1천350건)로 가장 많았다. 얼굴 다음으로는 ▲팔 18.8%(1천105건) ▲내부기관 11.6%(680건) ▲다리 10.4%(613건) ▲머리 8.9%(524건) 등의 순이었다.

상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기초품이 19.5%(1천15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포츠·레저·취미·놀이용품이 18.2%(1천69건) ▲토지·건설 및 설비 14.9%(877건) ▲가구 7.9%(462건) ▲보건·위생용품 6.9%(404건) 순이었다.

상해자들의 연령별 분포로는 10세 미만이 30.4%(1천787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4%(822건)-30대 12%(708건)-10대 8.3%(490건)-60대 이상 7.1%(416건)-50대 5.2%(307건) 순이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47.8%(2천811건)로 최고였고 공공 행사서비스 지역(12.8%),운동 및 여가활동 지역(9.4%),도로(7.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민정기자 viola@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featuring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nd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 Sim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유성공인중개사' (Yuseo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인애공인중개사' (Inae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동부부동산컨설팅(주)' (Dongbu Real Estate Consulting) with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dvertisement for '하이링크 컨설팅' (Highlink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전원공인중개사' (Jeonwon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